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신재생에너지

◆ 덴마크, 북해 에너지 섬 프로젝트 계획 연기(주덴마크대사관)

- Lars Aagaard 덴마크 기후·에너지·유틸리티 장관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북해에 건설을 추진중인 3GW 규모 에너지 섬(Energy Island) 프로젝트*가 자금 확보 문제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바, 프로젝트 진행 일정이 기존 계획보다 최소 3년 이상 연기될 예정이라고 밝힘.

* 덴마크, 독일, 스웨덴 사이에 위치한 발트해 본홀름(Bornholm) 섬 인근에 약 3GW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여, 2GW의 전력을 독일로, 1.2GW를 덴마크 본토로 송전할 계획

- 덴마크는 북해 에너지 섬과 벨기에를 연결하는 송전케이블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벨기에가 재원 일부를 조달하는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, 기존 예산인 79.3억 유로보다 예산이 약 500억 DKK(약 74.5억 USD)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벨측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짐.
 - 이와 관련, 덴 정부는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벨기에 대신 독일 정부와 북해 에너지 섬과 독일을 연결하는 송전케이블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

◆ 알제리, 제4차 신재생에너지 성과 보고서 발표(주알제리대사관)

- 알제리 신재생에너지개발청(CEREFEE)은 신재생에너지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제4차 신재생에너지 성과 보고서를 발표함(9.4).
 - 태양광 패널 설치가 최근 3년 크게 증가하였으며, 23.06MW 용량의 태양광 발전키트는 전체 오프그리드 태양광 전력 공급의 48.2%를 차지
 - 3,200MW 전력 생산능력을 보유한 Ghar Djebilet 태양광 발전소와 현재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하면, 총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은 4,000MW 초과할 것으로 전망
 - 알제리는 현재 6개의 태양광 모듈 조립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, 태양광 분야 연구자 및 전공자 육성에도 매진할 예정. 끝.